

# “위기 속 교육적 책무 다하는 대학 지속되길”

●정성택 전남대학교총장 이임

## 거점국립대 위상 제고·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결실 ‘학생 성공’ 핵심가치...융복합 전공 개발 경쟁력 확보

“거점국립대학교의 중심대학으로 대학 발전과 고등교육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정성택 제2대 전남대 총장이 지난 14일 대학본부 융복합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이임식에는 전남대 교직원과 학생을 비롯해 조성희 전남대 총동창회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택 총장 4년간의 발자취 발표’를 시작으로 이임 기념 영상 시청, 송공패 전수, 총장 백서 헌정, 내빈 축사, 이임사 등이 진행됐다.

정 총장은 전남대 의과대학 의학과(80학번) 출신으로 전남대 의대 부학장, 학생처장 등을

거쳐 지난 2021년 1월15일 전남대 제2대 총장으로 임기를 시작, 4년 재임 기간 동안 전남대를 국내 최고의 거점국립대학교로 도약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주요 성과는 ▲재정지원사업 수혜 거점국립대 1위(2022년 재정알리미)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1위 및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확보 1위(2023년 대학정보공시) ▲연구비 수주 거점국립대 최초 2천억 돌파(2023년 대학정보공시) ▲학생 1인당 장학금 거점국립대 1위(2024년 대학정보공시) ▲2024 THE 세계대학 Impact Rankings 7개 항목 거점국립대 1위 등이다.

정 총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환경 혁신에 주력했고, 전남대가 지역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 개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썼다.

특히 전남대가 변화와 융합을 통해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을 양성하는 요람으로 단계 더 뛰어오르는 것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했다.

‘학생 성공’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아 인문·교양에서부터 코딩, SW 등 이공학적 기초 소양을 다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인문·사회 과학 분야와 의·과학 등 이공학 간 균형있는 교육을 제공했으며, 전남대의 학문 다양성을 활용해 새로운 융복합 전공을 꾸준히 개발해 학생들이 미래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임사에서 “73년 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 속에 진리·창조·봉사라는 교시를 바탕으로 전남대가 탄생했다”며 “현재도 변하지 않는 전남대만의 정체성으로 위기 속에서도 변화의 주역으로서 교육적 책무를 실현하는 대학으로 당당히 존재해갈 것”이라고 고소회를 밝혔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해 9월25일 제2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를 통해 1순위로 이근배 의과대학 교수, 2순위로 송진규 공과대학 교수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비상계엄·탄핵정국 등 여파로 승인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김대이 기자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탄소중립 유공 ‘장관상’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원장 김상원·사진·이하진·이하진)은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조정실장(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개원 이래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광주형 탄소관리시스템 5개를 구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섰다.

김상원 원장은 “진흥원의 장관상 수상은 광주시와 광주시민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실천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수련클럽, 필리핀 봉사기금전달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수련로타리클럽(회장 박정연)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15일 광주수련로타리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필리핀 봉사 기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을 오는 2월 예정된 필리핀 봉사 활동에 전액 기부했다.

지난 바자회는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수익금은 필리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에 사용된다. 박정연 회장은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소외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수련로타리클럽은 매년 국내외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전달을 통해 국제적 차원의 나눔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성희 기자

## 목포자매도시 창원시, 여객기 참사유가족지원성금기탁

목포시는 15일 “자매도시인 창원특례시로부터 1천418만7천원의 성금을 지정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해 직원들의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목포시는 기탁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목포시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창원시와 지난 1998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30여년간 크고 작은 교류를 해 왔다. 2003년에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차 현장을 방문해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진해 균형제와 시민의날 행사 등에도 상호 방문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창원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광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 관계자들은 목포의 대표 관광인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둘러보는 등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포=정혜선 기자

## 광주교대부설초 학생들, 백혈병소아암협회 성금

광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교장 정종문)가 지난해 학기말 학부모와 학생들이 바자회를 열어 조성한 성금 1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에 전달했다.

15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바자회에서 학부모들은 음식, 학생들은 각자 준비한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해 수익금 100만원을 조성했다.

이번 기부가 3년차로 총 후원금은 300만원이 됐다.

정란옥 학부모회 회장은 “3년 전 학부모회에서 우리 아이들 포개가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알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준 이사장은 “교대부설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각별한 인식과 캠페인이 환아와 가족에게 큰 용기와 지지를 주는 일어서서 참으로 감사하며 그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기수희 기자



## 키우리, 창립 22주년 기념식·산학협동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KIURI, 이사장 김보근·원장 양승학)은 15일 오전 광주 무등파크 호텔에서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제26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보근 이사장의 기념사에 이

어 연구원 경과 보고, 박성수 초대원장 등 유공자 명단에 대한 공로패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산학협동포럼에서는 조평규 중국연달그룹 특별고문인 ‘중국은 우리의 내수시장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태호 기자



## 조선대-제너시스BBQ ‘글로벌 인재 양성’ 맞손

조선대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제너시스BBQ와 손을 잡았다.

15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제너시스BBQ 본사에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과 사회공헌을 위해 제너시스BBQ 그룹과 ‘조선대학교 가족회사 구축을 위한 산학 교류 RELAY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김춘성 조선대 총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맞춤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협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개발·참여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자원 인프라 공유를 위한 협력 ▲조선대학교 외 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 취·창업 지원 ▲양 기관의 공동 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 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취·창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이 기자

## 영암경찰, 외국인 밀집 원룸단지 사고 예방 간담회

영암경찰서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삼호읍 외국인 밀집 원룸 단지에서 폭죽 사용에 따른 소음,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삼호지구대에서 영암군, 영암소방서, 외국인지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설 명절에도 삼호 원룸 단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폭죽을 동시다발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주요 교차로 폭죽 사용 자제 현수막 설치, 외국인 커뮤니티 홍보, 폭죽 판매점 판매 자제 대책을 논의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원룸 밀집 지역에서 폭죽을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 명절을 앞두고 기동순찰대 등을 원룸 단지에 사전배치해 폭죽 사용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회공헌 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4일 노틀담형제의 집 사회공헌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초검사, 소변, 혈액 및 흉부촬영검사 등이 이뤄졌다.

박종석 광주전남지부 본부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건강 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을 선도하는 지역 공익의료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담양소방, 노인요양시설 ‘안전숨 프로젝트’

담양소방서는 15일 “노인요양시설 화재 발생 시 입소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안전숨(Safe Breath)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상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설치 추진 ▲화재 시 대피 유도자의 현장 활동 시간 연장 확보 등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 인사

광주시체육회 (승진) ◇3급 ▲안전시설본부장

노치일 ◇4급 ▲시설부장 고익상 ◇5급 ▲안전관리팀장 유성훈 <전보> ◇4급 ▲박치은 체육진흥부장 ◇5급 ▲임유승 연무팀장 ▲나성현 무등팀장

## 종천회

▲광주김씨 광주전남총회 2025년도 정기총회 =18일(토) 오전 10시30분 H메디컬센터 8층(광주 북구 서암대로18), 주차=H메디컬검진센터 주차장, 간근=2025년 사업계획 승인, 신임 집행부 승인, 기타 사항. 문의 김태균 사무처장(010-8578-1009).

## 결혼

▲김명철·이정열씨 아들 정석군, 강희철(기아오트랜드 광주)·장정희씨 딸 민지양=18일(토) 오후 4시 제이아트웨딩컨벤션 3층 페디스홀(광주 서구 풍서로209). ▲장영열·김매순씨 장남 승빈군, 김동진(담양군보건소장)·이미영씨 장녀 정민양=18일(토) 오후 1시30분 위더스 광주 5층 일린홀,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062-364-1234, 010-4008-1264.